

# “대한민국, 소상공인에 큰 빚져… 최우선 과제 ‘경영안정’”

권칠승 중기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소상공인 경영, 상권회복 노력 손실보장제도 도입 적극 검토 제도 법제화에 시간 상당히 걸려 법제정·재난지원금 투트랙 진행”

3일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 그리고 피해 당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을 놓고 후보자의 생각과 정책 대안을 묻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권칠승 후보자는 더불어 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

권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전한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장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며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꼽았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갖고 있는 한계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업종이나 소

상공인 등에 따라) 손실 차이가 있고, 정교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공동체 전체가 합의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장사에 타격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급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사전임을 전제로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손실보장제도를 법제화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손실

보장제 시행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해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 투트랙 모두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규모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선 “합리적인 기준 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손실보상 문제는 손실액 산정부터 형평성 제고, 재정 안정성 문제 등 숙제가 많은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정 문제를 고려해) 미국의 급여프로그램(PPP) 방식과도 유사한데 한국은 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사들이는 아이디어에도 공감이 간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권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한 관련 기업 체계적 육성 ▲제조공장 혁신 3대 프로젝트를 통한 전통 중소 제조 기업 혁신 ▲ 규제자유 특구 신규 지정해 지역 주력산업·선도 기업 육성 ▲ 대·중견 기업과 중소 기업 간 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 ▲ 생계형 적합업종 및 사업 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권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권 후보자가 과거 경기 고양시 안에서, 또 고양시와 화성시 사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자주 옮겨다녔다는 증거를 대며 “공직자로서 잊은 전입과 주거지를 이전한 것을 놓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아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미제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앙금희 의원도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수 차례의 주·정차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사례 등이 있다”면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본인의 것대로 판단해 개인 정보 제공을 ‘미동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권 후보자의 중기부장관 수행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특별히 없어 산자중기위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무난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진공, 중소기업 자율구조개선 지원

민관합동 정책협의회 발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민간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중진공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와 민간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정책협의회를 꾸렸다. 협의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정책협의회에선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연간 사업계획과 운영 성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열고 주요 경제 현안 발생 시 임시 회의를 소집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첫 번째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부실 위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경영 상황화를 돋우고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고 운영했다. 기존의 구조조정 제도와 차별화된 운영으로 15개사에 55억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승호 기자

## 한솔그룹, 4개 스타트업 발굴 밀착 지원

### ‘한솔 V-Frontiers’ 1기 성료 6개월 간 캠프·멘토링 등 진행

한솔그룹이 미래 먹거리와 신사업 모색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한솔그룹은 기술 창업 전문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와 함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한솔 V-Frontiers’ 제 1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한솔그룹과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지난 5월부터 한솔 V-Frontiers 프로그램을 통해 물류 테크, 홈 테크, 정보 기술(IT) 솔루션 분야 등에서 참가 스타트업을 모집했다.

여기에는 총 210여 팀이 지원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솔 V-Frontiers는 경선을 통해 이 가운데 유망 스타트업 4개사를 선별했다. 이들에게는 총 6개월 간 스타트업 캠프, 밀착 멘토링, 그룹 세션, 투자자 네트워킹 연결 기회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



한솔그룹과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진행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한솔 V-Frontiers’ 1기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타이틀(데이터베이스 기반 인테리어 협업 플랫폼) ▲테이텀(클라우드 스캐닝을 이용한 통합 정보보호 규정 관리 솔루션) ▲그룸어스(P2P 반려견 미용 예약 플랫폼) ▲블루웨일컴퍼니(실시간 상점 공간 공유 모빌리티 물류 플랫폼) ▲꽃팜(화훼 도소매를 잇는 B2B 꽃 도매 플랫폼)이 주인공이다.

이 가운데 노타이틀이 1위, 테이텀이 2위에 각각 올라 초기 운영 자금을 받았고, 3·4위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돌아갔다.

/김승호 기자

## 한샘, 자체 라방채널 ‘샘LIVE’ 론칭

채팅창 활용 양방향 소통 가능

한샘은 자체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비자들을 추가로 찾아간다.

한샘은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 ‘샘LIVE’를 론칭하고 3일 오후 한샘리하우스 스타일 패키지를 선보였다.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과 달리 채팅창을 활용해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이에 따라 한샘은 지난해 2월부터 다양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총 10여 차례의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며 자사 자체 방송과 거실 가구 등을 소개한 바 있

다. 방송 당 평균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기는 등 소비자 반응이 높아 자사 온라인몰에 자체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활동한 것이다.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샘LIVE’ 방송은 가구와 생활용품부터 부엌, 욕실 등 리모델링 패키지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첫 라이브방송은 한샘의 수도권 최대 매장인 ‘한샘 디자인파크 기흥점’에서 진행했다. 실제 모델 하우스에 구현된 ‘수퍼화이트’ 리모델링 패키지를 보며 현관, 욕실, 부엌 등 각 공간의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했다.

/김승호 기자

##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찾아가세요”

중기중앙회, 공제금 수령 적극 안내

중소기업중앙회가 찾아가지 않은 노란우산 공제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

을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운용 주체인 중기중앙회는 매달마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폐업 후 공제금 미신청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우편·문자 메시지·이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별도의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2020년 말 현재까지 38만 8829명에게 총 2조 8949억 원의 폐업 공제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